

의복 디테일을 활용한 리디자인 유형 분석과 패션 디자인 개발

김 소 영* · 윤 숙 원*

서일대학교 의상과 교수* · 서일대학교 의상과 강의전담교수*

Fashion Design Development and Type Analysis of Redesign Using Clothing Details

So-Young Kim* · Sook-Won Yoon*

Prof.,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 Seoil University⁺

Directo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 Seoil University*

(2012. 12. 10. 접수; 2012. 1. 16. 수정; 2012. 1. 18. 채택)

Abstract

Nowadays consumers have begun to have interest in eco-friendliness, and re-design is being highlighted as a fashion alternative for consumers with interest in ethical consumption. This study established the concept of re-design fashion as a way to practice eco-friendly design and analyzed various re-design fashions with four types. And it also analyzed decorative and structural details being often employed for re-design.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new alternative fashion in order to develop re-design fashion design that can satisfy both eco-friendliness and practicalit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zing re-design fashion types, they can be divided into the types of developing new products through combination of decorative details, combination of structural details, development of new fabric through fabric re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to different products.

Seco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examining the details that can be used to develop new re-design fashion products, pleats, shirring, tuck, peplum, or tab's decorative details and neck-line, collars, sleeves, cuffs, or pocket's structural details are utilized often.

Third, total seven recycled clothes were used to design three works taking decorative and structural details. Through this, the study suggests re-design fashion products that can solve environmental pollution resulted from wastes of clothes.

Key Words: Re-design fashion (리디자인 패션), Eco-friendly design (친환경디자인), Decorative details(장식적 디테일), Structural details (구조적 디테일)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대사회는 환경과 자원에 대한 문제의식과

지구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인류가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점차 천연자원이 고갈되면서 대체 에너지, 새로운 자원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이때에 버려지고 낭비되는 자원들을 모아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

Corresponding author ; So-Young Kim
Tel. +82-2-490-7505, Fax. +82-2-490-7502
E-mail : fdtksy@seoil.ac.kr

은 자원을 절약하고 재사용하여 자원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최근 패션에서도 친환경적 디자인, 그린 디자인, 자원절약과 재사용 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2년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소각돼 버려지는 옷을 전혀 다른 새로운 옷과 소품으로 제작하는 리디자인(redesign) 브랜드 레코드(Re; code)를 런칭했다. 브랜드 관리를 위해 소비자에게 선택받지 못해 소각되는 3년차 재고상품은 연간 약 40억원 정도에 이르는데, 이들 제품을 소각하기 보다는 리디자인하여 의류의 낭비를 막고, 자연 순환을 위해 소각되는 의상들을 낭비가 아닌 가치 있는 소비로 제안한 것이다(한인숙, 2012).

최근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성과 환경 문제,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리디자인은 윤리적 소비에 관심을 가진 소비자들을 위한 패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리디자인된 패션이 앞으로 소비문화를 이끌 수 있는 경향이라고 파악되어 본 논문에서는 친환경적과 실용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리디자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독창적인 스타일의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 보고자 한다.

리디자인은 친환경의 한 측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위해 리디자인과 친환경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친환경과 관련된 패션 스타일에 대한 연구들은 남후남(2010), 김미금 외(2010), 하승연(2009) 등에 의해 연구되었고, 친환경 소재와 관련된 연구는 김은진, 장남경(2009), 장윤선(2011)에 의해 연구되었다. 에코 패션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김새봄, 이경희(2010), 김새롬(2011)에 의해,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김수현, 이재정(2006), 김수현(2007), 신혜영(2011)에 의해, 그린 디자인과 로하스 패션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박수민과 유영선(2008)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친환경적 디자인과 소재와 관련된 이론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리디자인은 친환경적 디자인의 한 부분으로 언급되어 리디자인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친환경 디자인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리디자인 패션의 개념을 정립하고, 패션 디

자인에서 리디자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리디자인 패션이 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의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며, 텍스타일, 재고의류, 재활용 의류 등에서 얻어지는 소재나 디자인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디자인을 개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회, 문화, 패션 분야에서 친환경적인 측면과 연계하여 관련 서적과 선행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고, 리디자인과 관련된 사진 자료를 수집하여 리디자인의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리디자인과 관련된 패션 브랜드 및 디자이너들의 작품 사진을 수집한 결과,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리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보여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작품제작에 사용된 의상은 재고의류나 재활용 의상을 판매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가장 손쉽게 리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의복 디테일 활용이라 판단되어 디테일 활용 방법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의상의 디테일을 세분화시켜 리디자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의 소스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부각시킬 수 있는 리디자인 패션 디자인을 개발하여 재활용 의류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친환경과 관련된 패션디자인 용어를 알아보고, 친환경 디자인의 한 분야인 리디자인이 패션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2000년 이후 리디자인 브랜드나 디자이너들의 작품 분석을 통해 리디자인 유형을 알아보고, 리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장식적, 구조적 디테일들을 분류하여 기존 디자인과 접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재고 의류나 재활용 의류를 사용하여, 의복 디테일을 활용한 리디자인 작품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리디자인 방안을 토대로 재활용 의류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친환경과 관련된 패션디자인 용어

‘친환경’이란 환경과 인간 활동 두 가지 분야의 조화를 모색함으로써 건전한 미래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와 환경파괴 위협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야한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친환경 디자인의 개념이 더욱 다양화되어 사용되고 있다(장운선, 2011). 친환경 디자인들은 자원을 변형 혹은 재가공을 통하여 재생과 활용하는 디자인 방법론을 시도해 왔다. 이 디자인은 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소재의 형태와 용도를 바꾸는 방법에 의해서 제품디자인에 많이 응용되어 왔지만(김수현, 2007), 현재의 환경 문제를 고려한 친환경 디자인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 재활용도, 오염도, 폐기문제 등의 총체적 개념에서 재료와 생산 방법을 평가하고, 이를 디자인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확대 개념으로 변화되었다(장운선, 2011). 즉, 친환경이란 환경 보존을 위하여 재료부터 생산, 소비, 폐기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환경 친화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과 관련된 패션디자인 용어는 하승연(2009), 김새롬(2011), 장운선(2011), 김수현(2007)의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하승연은 친환경 패션을 자연주의, 그린, 환경 친화화와 에코, 지속가능한, 웰빙, 로하스로 분석하였으며, 김새롬은 에콜로지, 자연주의, 오가닉, 민속주의, 원시주의, 환경친화, 그린, 재디자인, 감량화, 다기능, 웰빙, 로하스, 지속가능, 사회 윤리적 디자인, 뉴에코로 분석하였다. 장운선은 그린 디자인, 에코 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 웰빙 디자인, 로하스 디자인, 환경 친화적 디자인으로 분

석하였고, 김수현은 에코, 지속가능한, 웰빙, 로하스로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과 관련된 대표적인 패션디자인 용어를 그린 디자인, 에코 디자인, 지속가능 디자인, 로하스 디자인, 환경친화적 디자인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그린 디자인은 1970년대 등장한 개념으로, 환경운동에서 비롯된 친환경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가 타제품보다 자원절약에 상당한 기여를 했거나 공해의 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그린 디자인은 자연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보호하는 개념에서 환경오염, 환경운동, 공해감소와 더불어 한정된 자원에 대한 고려로서 재료의 최소화 및 재활용 재료와 오래가는 재료의 사용 등 자원 절약에 대한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하승연, 2009). 이현아(2005)는 그린 디자인의 요소는 reduce, reuse, recycle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유해 여부와 에너지 소모 관계 및 재활용의 가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한 것이 그린디자인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에코 디자인(eco design)은 에콜로지(ecology)에서 유래한 환경, 생태를 뜻하는 에코(eco)와 디자인(design)의 합성어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였고, 환경 친화적 재료와 생태학적 세계관, 생태윤리, 생태미학, 신과학의 기술을 적용하며, 그린 디자인의 개념보다 진보적이면서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장운선, 2011). 에코 디자인의 사전적 의미는 디자인을 통해 환경과 생태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인류의 환경과 미래세대에 온전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자연적 과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디자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김새롬, 2011). 최근 패션 브랜드들은 환경과 관련된 사회 이슈에서 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영국의 핸드백 디자이너 아나 힌드마치(Anya Hindmarch)가 내놓은 ‘I’m not a plastic bag(나는 플라스틱 백이 아니에요)’ 문구가 쓰인 에코 백은 전 세계 여성들을 움직여 일회용 비닐 백을 대체했고, 이세이 미야케(Issay Miyake)는 옷에

〈표 1〉 친환경과 관련된 패션디자인 용어 및 개념

용어	그린디자인	에코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	로하스디자인	환경친화적 디자인
개념	자원 절약 공해 감소 재활용 가능성	환경 보존 삶의 질 향상	지속적 경제 사회의 웰빙 환경의 웰빙	건강, 환경, 사회 발전에 대한 가치	환경 무해 자연 친화적 인간 친화적

‘Carbon Neutral(탄소 중립)’이라는 직접적인 슬로건을 넣어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K.Fletcher, 2008). 즉, 인간에 대한 관심이 인류의 삶의 질적 향상으로 발전되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해석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제품의 개발에서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최소화하여 환경의 보존과 개선,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추구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장운선, 2011).

셋째,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인간과 환경을 존중하고 21세기에 강조되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고려하며, 인류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고,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그리고 환경 보존과 유지를 위한 진보된 개념의 에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장운선, 2011). 지속가능한 패션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재활용은 제품의 전체 또는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품자체의 용도를 바꾸어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재사용하거나 해체, 분해, 조립 등을 통해 부분을 활용하여 재 디자인 하는 것이다(김수현, 2007). 즉,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산물과 에너지를 재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로하스(LOHAS) 디자인은 건강, 환경, 사회정의, 자기발전과 지속가능한 삶에 가치를 두는 의식과 소비관, 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포함해 삶과 연관된 모든 가치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박혜원, 조민영, 2009). 로하스 패션은 웰빙 패션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건강 증시와 고감성 추구로 더욱 세분화되었고, 이러한 개인적 관심이 사회적 관점으로까지 확대되어 환경과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세

계화와 국제사회를 고려하는 의식 있는 삶을 지향하는 친환경패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하승연, 2009). 즉 로하스는 환경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의식 있는 삶을 지향하는 소비자의 감성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친환경 디자인이다.

다섯째, 환경 친화적 디자인은 자연의 순환 원리를 디자인에 적용하여, 자연의 물성을 통해 인간에게 쾌적하고 자연과 하나 되는 환경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정신이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다(장운선, 2011). 생태학적 디자인, 그린 디자인 등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생태계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친환경과 관련된 패션디자인 용어는 다양하게 표현되어왔으며(표 1),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자원절약의 측면에서 친환경적, 윤리적 소비에 대한 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리디자인 패션의 경향

리디자인(re-design)은 ‘~을 다시 혹은 다르게 디자인하는 행동 혹은 과정’ 또는 ‘형태, 기능, 혹은 내용을 수정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옥스퍼드사전, 2012). 장운선(2011)의 연구에서는 리디자인이란 친환경적 디자인의 구체적인 실용화 방안으로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기본 목표로 삼는 디자인이라고 정의하였다. 리디자인은 reduce, recycle, reuse, replace, reform, remake, revitalization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데, 자원의 재생, 재활용(recycle)은 디자이너가 선택하기 가장 쉬운 리디자인 방법이다.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적게 생산하고 적게 버리는 것이다.

재활용은 대부분은 시간이 흐르며 재생되는 물질의 질이 떨어지는 다운 사이클링이 된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재생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어 질 낮은 합성물질이 되므로 환경오염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재활용을 도우려면 재생, 재활용이 쉽도록 친환경적으로 설계하고 효과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공정의 혁신을 통해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장윤선, 2011).

1992년에 미국디자인 총회에서 공표한 환경보호를 위한 원리를 살펴보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자연의 자원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내구성과 보수 유지, 재활용을 위한 디자인을 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에너지 자원을 선택하고, 생산과 조각에 있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채택한다는 내용이였다(하승연, 2009). 이러한 개념들이 바로 우리가 리디자인을 실행함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즉 리디자인은 제품의 재상품화로부터 부품 단계에서의 재이용, 원재료로 환원하여 재가공하는 소재의 재활용, 그리고 산업 폐기물의 재자원화까지 자연의 순환이용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개념이다(배지영, 2007). 일반적으로 리디자인은 의복의 형태를 분해하여 해체시킨 후 일부분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방식과 형태 변경을 통하여 다른 제품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한 번 이상 써본 제품을 재활용(recycling)하는 것이 아닌 재고상품을 활용하는 업사이클링(up-cycling)도 리디자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활용 제품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리사이클링이 아닌 업사이클링이라고도 부르는데,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아 창고에 쌓인 재고상품을 일일이 해체해 원단처럼 만들어(동아일보, 2012) 리디자인을 하여 새로운 옷을 만들기도 한다.

국내의 ‘리블랭크(Reblank)’, ‘에코파티메아리(Eco Party Mearry)’,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레코드(RE; CODE)’, 미국의 ‘에코이스트(Ecoist)’,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Imitation of Christ)’, ‘러셀 세이지(Russell Sage)’, 영국 ‘정키스타일링(Junky Styling)’, 스위스의 ‘프라이탁(Freitag)’,

패션 디자이너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나이키(NIKE)’ 등 리디자인 제품들에 관심을 가지고 제품화하는 브랜드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영국패션협회(BFC)는 2006년부터 런던 패션위크에 ‘에스테티카(Estethica)’ 섹션을 만들어 윤리적이면서 디자인도 훌륭한 패션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영국 업사이클링 브랜드 ‘정키스타일링’은 “옷을 보는 관점이 기존 패션과 다르기 때문에 리디자인은 더 독창적인 스타일을 선보일 수 있으며, 독창성과 윤리, 아름다운 스타일링이 만나야 소비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동아일보, 2012)고 말했다.

이처럼 패션에서의 리디자인은 자원들을 활용하여 창조적 디자인 감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친환경적 의식 변화는 윤리적 패션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III. 리디자인 패션의 유형

최근 영국 하이패션 유통업체인 탑 샵(Top Shop)은 최근 일회성 무료 공예 워크숍을 몇몇 지점에서 열었고, 페미니즘 잡지 버스트(Bust)는 정기적으로 옷을 재작업하는 리디자인에 대한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K.Fletcher, 2008). 이처럼 패션 브랜드나 잡지, 패션 디자이너들은 재활용 의류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의 리디자인 패션을 제안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리디자인 관련 기사 검색 및 관련 서적을 통해 리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패션 브랜드 및 디자이너들의 사진자료를 수집하였고, 2000년 이후의 자료들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총 386장의 사진 자료를 수집하였고, 리디자인 유형 분석을 위해 패션전공 대학원생 5인의 도움을 받아 리디자인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후 패션브랜드의 디자인 실장 2인이 검증으로, 리디자인 유형을 장식적 디테일의 결합, 구조적 디테일의 결합, 원부소재로서의 의복 재구성, 다른 아이টে으로의 재구성으로 유형을 나누었다.



<사진 1> Alabama Chanin
(출처: Eco Fashion, p.15.)



<사진 2> Alabama Chanin
(출처: Eco Fashion, p.16.)



<사진 3> Taller Flora
(출처: Eco Fashion, p.50.)



<사진 4> E2
(출처: Eco Fashion, p.111.)

1. 장식적 디테일의 결합

가장 실천하기 쉬운 리디자인 방법은 유행하고 있는 플리츠(pleats), 셔링(shirring), 턱(tuck), 페플럼(peplum), 탭(tab) 등 장식적인 디테일들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재활용 의류들은 유행에 뒤지거나 싫증나기 때문에 폐기되는 의류들이다. 여기에 현재 유행하고 있는 장식적인 디테일들을 덧붙이면 새로운 느낌의 리디자인 의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미국의 알라바마 샤닌(Alabama Chanin)은 정교하면서 장식적인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디자인을 창조하고 있는 리사이클링 업체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리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1>은 알라바마 샤닌의 100% 면소재의 재활용 원피스에 재활용 T셔츠의 원단을 재단하여 장식적인 디테일을 만들어 패치워크와 스티치를 이용해 장식한 의상이다. <사진 2> 역시 미국의 전통적인 퀼트방식과 핸드 스텐실 방식을 결합한 디자인으로 장식적인 디테일을 사용해 리디자인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여겨진다. <사진 3>은 카를라 페르난데즈(Carla Fernandez)가 설립한 플로라 위크숍(Taller Flora)은 멕시코 원주민들의 핸드메이드 원단과 의복에서 영감을 받은 리디자인 브랜드로, 전통미를 현대화시킨 디자인을 통해 레트로 스타일의 리디자인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퀸과 사각형의 전통적인 멕시코 스타일을 재해석하여 현대적으로 개념화하여 장식적 디테일만으로도 리디자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진 4>은 E2의 디자인으로 벵룩시장에서 발견한 고전적이고 에스닉한 전통적인 빈티지 스타일에 손뜨

개 레이스 장식, 리본, 허리장식 등의 장식적 디테일을 결합시켜 리디자인한 작품이다.

2. 구조적 디테일의 결합

구조적 디테일을 결합하는 방법은 네크라인(neckline), 칼라(callar), 소매(sleeve), 커프스(cuffs), 포켓(pocket) 등 의복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적 디테일을 모양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사진 5>는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개막식에서 배우 문소리가 착용한 리디자인 브랜드 '래코드'의 의상으로, 셔츠 단추와 섬세한 플리츠가 돋보이는 화이트 시스루 드레스이다. 상반신의 가슴 라인과 등 라인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섹시함과 요염함을 강조하였고, 이월상품으로 버려지는 옷들을 새롭게 리디자인해 만든 의상이다. 문소리를 위해 특별 제작한 이 의상은 남성의 셔츠를 맥시한 드레스로 변형해 가벼운 느낌을 강조했으며, 등 라인의 시스루 부분은 낙하산을 재활용해 만들어졌다.

디자이너 마르콥스카(Kasia Markowska)와 환경학자 안드지악(Zuzia Andziak)이 2005년 설립한 반마르코빅(Van Markovic)은 슬로우 패션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브랜드이다. <사진 6>은 지속적인 천연 자원 사용의 감소를 위해 생산 자체의 감소를 유도하여, 기존 제품을 다시 사용하기, 다시 제조하여 제품화하기, 제품을 리디자인하기 등 구조적 디테일들을 이용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7>은 개리 하비(Gary Harvey)가 디자인한 데님 드레스로, 다양한 인디고 염색의 미묘함을 보여주는 42개의 리바이스



<사진 5> 레코드
(출처: www.okfashion.co.kr, 2012.12.)



<사진 6> Van Markovic
(출처: Eco Fashion, p.53.)



<사진 7> Gary Harvey
(출처: Eco-chic, p.161.)



<사진 8> Enamore
(출처: Eco Fashion, p.79.)



<사진 9> Somewhere
(출처: Eco-fashion, p.115.)



<사진 10> TRAI Dremade
(출처: Eco-fashion, p.137.)



<사진 11> Andela Johnson
(출처: Eco-fashion, p.105.)



<사진 12> Orsola di Castro
2007 S/S (출처: Eco-fash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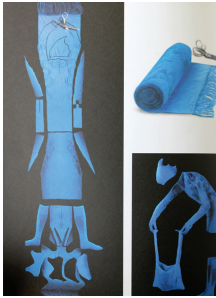
(Levis) 501 데님들의 구조적인 라인을 그대로 이용하여 콜셋 웨이스트의 티어드 볼가운(ballgown)을 디자인하였다. <사진 8>은 창조적인 패션라벨 에나모레(Enamore)가 제작한 의상으로, 빈티지 재료들을 사용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컬러풀한 이미지의 소스와 트리밍, 구조적 디테일들의 변화를 이용하여 핀업걸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리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3. 원부자재로서의 의복 재구성

2000년에 설립된 리사이클 패션라벨 트레이드 리메이드(TRAIDremade)는 영국 전역 트레이드 리메이드(TRAID)의 900개 텍스타일 리사이클링 은행에서 기증된 의류들, 찢어지거나 폐기되는 의류들을 이용하여 혼합, 매치, 찢기, 자르기, 바느질하여 하이 스트리트 패션을 만들어내고 있다 (Brown, 2010). 이와 같은 원부자재의 재구성을 통한 색다른 원단의 조합이나 디자인은 찢어져서 입지 못하는 의류나 원단 재단 후 남은 자투리 천 등 폐기될 소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자원 절약과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원단이라는 확고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리디자인이라 생각된다.

<사진 9>은 썸데얼(Somewhere) 브랜드의 독특한 조각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중고 스웨티나 가디건, 재단하고 남은 원단, 원단 롤의 끝 쪽 부분 등을 연결하여 새로운 원단으로 재구성한 후 리디자인한 작품이다. <사진 10>은 트레이드 리메이드(TRAIDremade)의 제품으로, 손상되고 얼룩투성이의 의류를 사용하여 패치워크하고, 조각내고, 프린팅하여 하나밖에 없는 원단을 재창조하여 폐기되는 상품을 아름답게 리디자인한 것이다. <사진 11>은 안젤라 존슨(Angela Johnson)의 풍자적인 무도회 드레스 디자인으로, 각종 그래픽이 프린트된 T-셔츠들을 재활용하여 패브릭 조각들을 혼합하고 매치시켜 새로운 원단을 구성하여 리디자인한 디자인이다. <사진 12>는 오솔라 디 카스트로(Orsola di Castro)가 2007 S/S 컬렉션에서 보여준 작품으로 재활용 의류의 천들을 조합하여 원단을 재구성하였고, 원단의 아



<사진 13> APOC Queen
(출처: Issay Miake, 1999 S/S)



<사진 14> Droog Design
(출처: Eco-chic, p.54.)



<사진 15> Suitcase
(출처: Eco Fashion, p.135.)



<사진 16> Vogue 2009.12.
(출처: www.style.com)

롭다운 컬러 매치와 프릴 장식을 이용하여 레트로 스타일의 의상으로 리디자인하였다.

4. 다른 아이템으로의 재구성

리디자인을 할 때 기존의 제품과는 다른 아이템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 디자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제품을 재활용함으로써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확보하여 재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큰 부피를 작은 부피의 제품으로 리디자인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사진 13>은 머플러를 이용해 한 장의 천으로 남기는 것 없이 옷을 만든 이세이 미야케의 APOC(a piece of cloth) 리디자인으로, 이세이 미야케의 심플한 에코 디자인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소한의 원단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제품을 디자인함으로써 생산 공정과 인력을 줄이는 파격적인 컬렉션은 보수적인 패션계에 이세이 미야케라는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14>는 드로그(Droog) 디자인팀의 유체 기능 시리즈의 일부분으로, 여러 가지 사물을 다양한 형태로 리디자인하여 재활용하는 환경친화적 디자인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바닥이 두꺼워 폐기하기 아까운 카페트를 슬리퍼와 같은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통한 상품 개발의 좋은 예로 보여진다. 에드슨 로프(Edson Raupp)는 남성복과 리사이클링에서 영감을 받아 가방을 제작하는데, 남성 슈트 재킷을 재활용해서 만든 독특한 가방 스타일을 보











여준다(사진 15). 재킷의 특징적인 모양, 디자인과 색상, 소매, 포켓, 라펠은 독창적인 가방 생산을 최적화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재단되어 각 디테일들이 그대로 사용되며, 어깨끈은 폐기된 카시트의 가죽 끈을 이용하여 영국신사의 슈트 재킷의 클래식한 요소들을 슈트케이스로 변화시킨다. <사진 16>은 이세이 미야케의 수석 디자이너 다이 후지와라(Dai Fujiwara)와 보자기 아티스트 이효재가 이세이 미야케 2010년 S/S 컬렉션에 한국 디자이너로는 처음으로 콜레보레이션 작업을 한 것이다. 상품을 싸는 보자기를 이용하여 작업 과정에서 오리거나 덧붙이지 않고, 기존의 가방에 덧입힘으로써 새로운 리디자인을 제안하고 있다.

IV. 의복 디테일을 활용한 리디자인 패션 개발

1. 리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의복 디테일 분석

의복 디테일(detail)은 의복 전체에 대하여 세부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의복의 제작 과정에서 장식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장식적 디테일과 기본 구성에 해당하는 구조적 디테일이 있는데, 의복의 전체적인 실루엣 및 이미지와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장식적 디테일에는 플리츠, 셔링, 턱, 페플럼, 탭, 프릴, 러플, 플라운스, 개더, 루쉬, 파고팅, 바인딩, 프린징, 스칼립, 스모킹, 퀴팅, 컷워크, 패치워크 등이 있으며, 구조

<표 2> 리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장식적 디테일

플리츠	셔링	턱	페플럼	랩
 <p><사진 17> Franzius 2012 S/S (출처: www.franzius.eu)</p>	 <p><사진 19> Franzius 2012 S/S (출처: www.franzius.eu)</p>	 <p><사진 21>Anuschka-Hoeverner 2012 F/W (출처: www.anuschkahoevener.de)</p>	 <p><사진 23> Lulu Liu 2013 S/S (출처: www.lulu-liu.com)</p>	 <p><사진 25> Rupal Patel (출처: FASHION2, p.488.)</p>
 <p><사진 18> Dawid Tomaszewski (출처: Fashion2, p.113.)</p>	 <p><사진 20>Anuschka-Hoeverner 12' S/S (출처: www.anuschkahoevener.de)</p>	 <p><사진 22> (출처: Vogue(Italia), 2011.10, p.419.)</p>	 <p><사진 24> Thom Browne 2013 S/S (출처: www.thombrowne.com)</p>	 <p><사진 26> Burberry 2013 S/S (출처: www.burberry.com)</p>

적 디테일은 네크라인, 칼라, 소매, 커프스, 포켓, 암홀, 웨이스트라인 등이 있다(김경실 외, 2006).

본 장에서는 2012-2013 컬렉션에서 보여지는 장식적 디테일과 구조적 디테일의 유행 경향을 살펴보고 이들 의복 디테일들이 리디자인할 때 유행에 뒤지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장식적 디테일

(1) 플리츠(pleats)

주름은 인체 활동에 필요한 여유분을 주며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잔주름, 넓은 주름, <사진 17>과 같은 외주름, 맞주름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최근 디자인에서는 <사진 18>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기계주름을 활용해 새로운 소

재로 이용되고 있고, 세탁 후에도 변형되지 않는 주름가공법은 다양한 플리츠 형태를 만들어 내므로 다양한 리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다.

(2) 셔링(shirring)

셔링은 넓은 땀으로 박은 봉제 실 끝을 잡아 당겨서 생기는 가는 주름으로, 인체의 곡선미를 드러내는 디자인이나 기능적으로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다. <사진 19>는 허리밴드로 암홀을 감싸고 셔링 잡힌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여 여성스러운 서클러 캡 슬리브로 리디자인 할 수 있고, <사진 20>의 셔링 처럼 아동복의 귀엽고 감쪽한 포켓 디자인으로 리디자인 할 수 있다.

(3) 턱(tuck)

턱은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옷감에 주름을

접어 일정한 간격으로 박아서 장식하는 바느질 방법으로, 장식의 목적이나 의복을 몸에 피트(fit)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된다(강순희, 서미아, 2005). <사진 21>의 두꺼운 원단에 만들어진 턱은 방향을 바뀌가면서 스티치를 주어 리듬감과 변화를 주면서 리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고, <사진 22>와 같이 스커트나 팬츠의 허리선의 변화에 많이 사용하며, 팬츠에 잡힌 턱은 그 깊이에 강약을 주면서 포켓 등으로 리디자인 할 수 있다.

(4) 페플럼(peplum)

페플럼은 타이트 스커트 위에 밑의 스커트보다 짧은 플레어 스커트를 허리에서부터 아래로 끼어 넣어 덧붙인 형태로, 허리선이나 엉덩이선을 절개하여 주름이나 플레어된 천을 늘어뜨린 것이다(신혜순, 2007). <사진 23>의 페플럼은 중심선 또는 네크라인으로 이동하여 러플의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진 24>의 페플럼은 플레어량이 많지 않으므로 폭을 축소하여 칼라 또는 커프스로 리디자인 할 수 있다.

(5) 탭(tab)

탭은 스포티한 디자인이나 밀리터리룩, 레인 코트 등의 소맷부리나 요크에서 볼 수 있는 조임단으로, 넓은 소매 부리를 조이기 위해 겹쳐대는 장식이다. <사진 25>와 <사진 26>의 탭은 리디자인에 같이 활용할 의상의 색상과 재질에 맞춰 의복의 밑단이나 칼라의 끝부분으로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포켓, 소매 등의 부분 또는 전체로 리디자인 할 수 있다.

2) 구조적 디테일

(1) 네크라인(neckline)

네크라인은 착용자의 얼굴형, 목의 굽기, 헤어스타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깨의 경사도와 넓이도 네크라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기본 원형을 중심으로 파거나 높이고 또는 전·후·좌·우를 조절하여 다양하게 디자인 할 수 있다. 슬릿 네크라인인 <사진 27>과 비대칭 오픈더 슬터 네크라인인 <사진 28>은 스커트, 팬츠 또는 상의의 밑단으로 이동시켜 변화를 줄 수 있고, 소매나 포켓 등의 디자인에도 네크라인의

특징적인 라인을 활용하여 리디자인 할 수 있다.

(2) 칼라(callar)

칼라는 형태에 따라 다른 소재로 모양을 만들어 달거나 몸판에서 직접 연결하여 만들기도 하며 달리는 위치의 모양에 따라 칼라를 분류할 수 있다. 칼라의 크기와 높이, 형태는 착용자의 인상과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칼라를 디자인 할 때에는 얼굴형, 목 길이와 굽기, 체형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사진 29,30>의 솔칼라는 절개하여 피트되는 라인의 상의에 페플럼으로 리디자인 할 수 있다.

(3) 소매(sleeve)

팔의 활동성으로 인해 소매는 의복구성상 연결되는 부위와 여유량 및 형태의 변형이 독자적으로 일어 날 수 있는 다양성을 지니므로, 소매를 디자인할 때에는 소매의 기능성, 형태와 크기가 의복 전체와 잘 조화되는가를 고려해야한다. <사진 31, 32>와 같은 독특한 느낌의 소매는 밀선을 전개시켜 몸판으로 활용하거나 커프스 등으로 리디자인 할 수 있으며, 기본 디자인의 소매는 밀선은 그대로 두고 길이에 변화를 주어 포켓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커프스(cuffs)

커프스는 소맷부리 장식으로 디자인에 따라 러플, 프릴, 주름, 핀턱 등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으며, 커프스를 디자인 할 때는 의복의 소매와 칼라의 형태 등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사진 33,34>의 커프스는 크기를 축소시켜 탭으로 변화를 줄 수 있고, 플랩 포켓의 플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커프스를 조화롭게 연결하여 소매로 리디자인 할 수 있다.

(5) 포켓(pocket)

포켓은 기능적인 면과 장식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 때 착용자의 손 크기와 손이 닿는 위치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소재와 색으로 변화를 주면 장식적 효과를 줄 수 있다. <사진 35>와 같은 포켓은 내부에 있는 포켓을 외부로 빼내어 형태와 크기

<표 3> 리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디테일

네크라인	칼라	소매	커프스	포켓
 <p><사진 27> Anuschka- Hoevener 2012 S/S (출처: www.anuschkahoevener.de)</p>	 <p><사진 29> Franzius 2012 F/W (출처: www.franzius.eu)</p>	 <p><사진 31> Megla.M 2012 F/W (출처: www.megla-m.com)</p>	 <p><사진 33> Issever Bahri 2012 S/S (출처: www.isseverbahri.com)</p>	 <p><사진 35> (출처:Vogue(Italia), 2011.10, p.149)</p>
 <p><사진 28> Dawid-Tomaszewski 2012 S/S (출처: www.dawid-tomaszewski.com)</p>	 <p><사진 30> (출처: Fashion Insight, No.632 p.34.)</p>	 <p><사진 32> Gucci 2013 S/S (출처: www.gucci.com)</p>	 <p><사진 34> Issever Bahri 2012 S/S (출처: www.isseverbahri.com)</p>	 <p><사진 36> (출처:Vogue(Italia), 2011.10, p.413)</p>

등에 변화를 주고 밑단에 끼워 박거나 소매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리디자인 할 수 있고, <사진 36>과 같이 큰 사이즈의 포켓은 프렌치 슬리브나 튜립 슬리브로 리디자인 할 수 있다.

<표 2, 3>의 리디자인 활용 방법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장식적 디테일과 구조적 디테일을 원단처럼 사용한다거나 장식적 디테일을 구조적 디테일로 변경하여 제작할 수도 있으며, 장식적 디테일의 형태를 달리하여 또 다른 장식적 디테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구조적 디테일을 변화시켜 장식적 디테일로 리디자인 할 수도 있으며, 디테일의 형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여 리디자인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리디자인 방법은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의미에 더하여 제작에 필요한 시간의 단축으로 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디자인 발상을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벌의 의복을 활용하여 리디자인 한다면 좀 더 독창적이면서 개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2. 리디자인 패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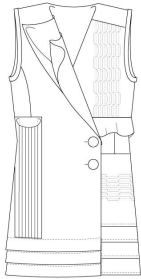
본 연구의 작품제작에 사용된 의상은 재고의 료나 재활용 의상을 판매하고 있는 ‘아름다운가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가장 손쉽게 리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복 디테일을 활용하였다. 작품 I은 장식적 디테일을 중심으로 리디자인한 작품이며, 작품 II, III은 구조적 디테일을 중심으로 리디자인한 작품이다.

1) 작품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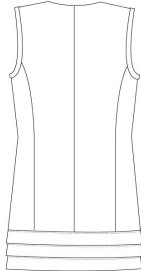
Theme: 장식적 디테일을 활용한 디자인
Item: Vest
Materia: Wool, Polyurethane, Polyester
Color: Gray, Pink

<표 4> 작품 디자인에 사용된 의상과 완성 디자인

사용된 의상			작품 I
			



<사진 37> 작품 I의 도식화-앞



<사진 38> 작품 I의 도식화-뒤

Image: Modern, Romantic

작품 I 은 장식적인 디테일 중 턱(tuck)이 표현된 코트와 페플럼(peplum)이 달린 재킷, 그리고 베이직 한 디자인의 코트를 해체하여 도시적이면서 낭만적인 느낌의 롱 베스트로 리디자인한 작품이다.

핑크 색상의 단순한 형태의 스페이스 턱을 같은 간격으로 방향을 바꿔가며 눌러 박아 역동적인 리듬감을 주고 입체감을 더하여 베스트의 왼쪽 앞판 상단에 위치시켰다. 하이 웨이스트 부분에 재킷 페플럼의 폭을 좁게 재단하면서 사이에 끼워 박고 페플럼의 밑단을 너울거림을 살려 변형시킨 턱과 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나머지 페플럼을 이용하여 진동돌레를 파이핑 처리함으로써 밝고 경쾌한 느낌으로 연출하였다.

베스트의 왼쪽 허리 아래 부분에는 핑크 코트 소매를 펼쳐 소매 단 쪽의 기존의 턱을 방향을 바꿔가며 눌러 박고 소매의 나머지 부분에 간격을 넓힌 작은 스페이스 턱을 잡고, 베스트의 다른 한 쪽에는 넓게 턱을 잡아 전체적인 디자인

의 균형과 조화를 주었다. 베스트의 오른쪽 앞판에 핑크 코트의 허리 부분에 둘러 있던 턱과 그레이 코트의 소매를 이용하여 긴 형태의 포켓을 만들어 달아 장식적인 디테일을 구조적으로 활용하여 기능성을 높였다. 베스트 한 쪽은 칼라 없이 v넥라인으로 심플함과 세련된 느낌을 표현하였고 다른 한 쪽은 칼라를 이중으로 만들어 조형성을 부각시켜 현대적이면서도 낭만적인 느낌의 칼라를 만들었다.

2) 작품 II

Theme: 구조적 디테일을 활용한 작품

Item: Jacket

Material: 양가죽, Wool, Polyester

Color: Camel, Beige, Ivory

Image: Classic, Elegance

작품 II는 가죽 재킷과 여성적인 형태의 디테일로 구성된 코트를 해체하여 클래식하고 우아한 느낌으로 리디자인한 작품이다. 가죽 재킷의 허리라인을 축소시켜 몸에 밀착시킬 수 있도록 하여 여성스러운 바디라인을 표현하였으며, 가죽 재킷의 밑단을 사선으로 재단한 후 코트의 주름 잡힌 큰 사이즈의 피터팬 칼라를 재킷 밑단에 페플럼으로 사용하여 물결치는 듯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곡선의 리듬감을 주었다.

재킷의 뒤판은 앞판보다 길이를 짧게 재단하고 따로 페플럼을 만들어 달지 않아 심플하고 정리된 느낌과 앞판과 언밸런스하게 변화를 주었다. 기존의 코트에서 리본형태가 달린 포켓은

<표 5> 작품Ⅱ 디자인에 사용된 의상과 완성 디자인



<사진 39> 작품Ⅱ의 도식화-앞



<사진 40> 작품Ⅱ의 도식화-뒤



재킷의 프렌치 소매로 활용하여 사랑스럽고 귀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또한 코트의 두 장 소매를 분리하여 작은 소매를 제거하고 부드러운 곡선의 입체적인 조형물을 만든 후 높은 스탠드 칼라로 만들어 고전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주었다.

리디자인된 재킷은 전체적인 느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가죽 재킷의 작고 어색한 색상의 단추를 제거한 후 재킷에 비하여 오버사이즈의 코트 단추를 부착시켜 시선이 모아지는 효과로 좀 더 슬림한 인체 라인을 표현할 수 있었다. 재킷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16세기의 대표적인 남성복인 더블렛을 연상시키지만 각각의 구조적 디테일이 주는 여성스러운 느낌과 인체의 곡선을 살려주는 라인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작품이다.

3) 작품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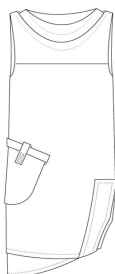
Theme: 구조적 디테일을 활용한 작품

Item: One-Piece Dress

Materia : Wool, Polyester



<사진 41> 작품Ⅲ의 도식화-앞



<사진 42> 작품Ⅲ의 도식화-뒤

Color: Black

Image: Feminine, Elegance

작품Ⅲ은 니트웨어와 모직 셔츠를 해체시켜 원단처럼 또는 기존의 디테일을 살려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의 원피스로 리디자인한 작품이다. 셔츠의 뒷면을 H라인 원피스의 앞면으로 재단한 다음 니트웨어의 V넥라인을 이루는 니트 조직을 원피스 옆선 하단에 부착시키고 남아 있는 니트 소재로 사선에 짧은 티어드를 연결하여 우아한 실루엣의 옆트임과 원피스 밑단을 비대칭으로 디자인하여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셔츠의 롤-업 소매(Roll-up Sleeve)를 이용하여 롤-업 된 부분에 니트웨어에 장식되어 있던 모피를 끼워 넣어 고정시키고 기울어진 형태의 포켓으로 만들어 블랙 색상의 차갑고 무거운 느낌을 고급스러운 클러치 백(Clutch Bag)을 든 것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원피스의 앞판에 기존의 니트웨어 몸판을 사용하여 여성스러운 카울 넥라인을 만들

<표 6> 작품Ⅲ 디자인에 사용된 의상과 완성 디자인



〈표 7〉 리디자인 작품, II, III 분석

	리디자인에 활용한 디테일	리디자인 디테일
작품 I (vest)	스페이스 턱	변형된 턱
	페플럼	변형된 페플럼
	테일러드 칼라	조형적인 칼라
	소매	포켓
작품 II (jacket)	피터팬 칼라	페플럼
	포켓	프렌치 소매
	소매	스탠드 칼라
작품 III (one-piece)	V 넥라인	옆트임
	롤업 소매	포켓

어 우아함을 더 하였으며, 원피스 상·하 부분 디자인의 통일감을 주었다. 셔츠의 앞판을 깊은 라운드 넥라인으로 재단 한 후 앞여밈을 원피스의 뒤여밈으로 활용하여 작·탈의 시에 편안하고 카울 넥라인의 다소 높은 넥라인에 반전을 주는 디자인으로 기능성과 심미적인 측면을 고려한 작품이다.

〈표 7〉은 작품 I, II, III에 활용된 디테일과 이것을 리디자인 했을 때의 디테일의 활용을 정리한 표이다.

V. 결론

리디자인 패션은 폐기물 감소 효과와 원자재 절감이라는 측면 외에도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의 소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패션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희소성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무한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리디자인 패션은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미래 패션의 대안책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자원을 절약하고 상품화 할 수 있는 리디자인을 제안함으로써 다양한 디자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리디자인 패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장식적 디테일의 결합, 구조적 디테일의 결합, 원

부자재로서의 의복 재구성, 다른 아이템으로의 재구성으로 유형을 나누었다.

둘째, 의복 디테일을 활용한 리디자인 패션 상품 개발을 위해 리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디테일을 살펴본 결과, 플리즈, 셔링, 턱, 페플럼, 탭의 장식적 디테일과 넥라인, 칼라, 소매, 커푸스, 포켓의 구조적 디테일이 활용도가 높은 디테일이다.

셋째, 리디자인 패션 상품 개발을 위해 장식적 디테일을 활용한 디자인 1작품, 구조적 디테일을 활용한 디자인 2작품을 제작하였고, 3벌의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총 7벌의 의상이 사용되었다.

넷째, 장식적 디테일을 활용한 작품I은 장식적인 디테일 중 턱(tuck)이 표현된 코트, 페플럼(peplum) 달린 재킷, 베이직 디자인의 코트 3벌의 의상을 해체하여 도시적이면서 낭만적인 느낌의 롱 베스트로 리디자인하였다. 단순한 형태의 스페이스 턱을 역동적 리듬의 변형된 턱으로, 하이 웨이스트 부분에 재킷 페플럼을 끼워 박아 현재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리디자인하였다.

다섯째, 구조적 디테일을 활용한 작품II는 가죽 재킷과 여성미를 지닌 코트 2벌을 해체하여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을 반영하고자 클래식하고 우아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재구성하였다. 가죽 재킷의 허리라인을 축소시켜 여성스러운 바디라인을 표현하였고, 가죽 재킷의 밑단을 사선으로 재단한 후 코트의 피터팬 칼라를 페플럼으로 리디자인하였다. 코트의 포켓은 재킷의 프

렌치 소매로 활용하였고, 코트의 소매는 스탠드 칼라로 만들어 고전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주었다.

여섯째, 구조적 디테일을 활용한 작품Ⅲ은 니트웨어와 모직 셔츠 2벌을 해체시켜 재구성하였고, 트렌드를 반영하여 우아함을 강조한 비대칭 디자인으로 리디자인하였다. 셔츠의 뒷면은 H라인 원피스의 앞면으로 재단하여 니트 조직의 원피스 옆선 하단에 부착시키고, 니트 소재로 사선의 짧은 티어드를 연결하여 옆트임과 원피스 밑단을 비대칭으로 디자인하였다. 셔츠의 롤업된 부분은 분리하여 모피를 끼워 넣어 포켓으로 리디자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행에 뒤떨어져 더 이상 입지 않고 옷장 속에 들어있는 의상들을 리디자인하여 새롭게 디자인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유행에 뒤진 의상들은 현재의 트렌드에 떨어진다는 이유로 착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유행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변화되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의복들이다. 본 연구자는 의복의 세부적인 디테일들의 유행 경향을 파악하고 현재의 유행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디테일들 활용해야 할지를 고려하였고, 리디자인으로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는 의복을 디자인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의류업체에서 판매되지 않아 폐기되는 의류들,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들에 관심을 가지면 자원절약과 자연보호를 유도할 수 있으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연구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경실, 유성욱, 간호섭. (2006). *패션디자인*. 서울: 수학사.
- 김미금, 박희정, 간호섭. (2010). 현대 패션 브랜드에 나타난 친환경 경향 연구. *패션 비즈니스*, 14(4), 185-199.
- 김새롬. (2011). *에코패션디자인의 유형체계와 조형적 특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새롬, 이정희. (2010). 에코 패션디자인의 유형분석과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6), 555-563.
- 김수현, 이재정. (2006).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의 개념과 원리. *기초조형학연구*, 7(3), 225-237.
- 김수현.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지속가능한 디자인 연구 영국사레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란.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의복구성의 부분 변형*.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진, 장남경. (2009). 폐원단을 이용한 친환경 패션 디자인. *복식* 17(2), 225-237.
- 박수민, 유영선. (2008). 2000년대 그린디자인에 나타난 로하스의 패션특성 분석. *한국복식학회지*, 32(2), 307-318.
- 박혜원, 조민영. (2009). 로하스 패션디자인 유행에 따른 특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10), 1575-1589.
-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2. 12. 7, 자료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 신혜순. (2007). *현대패션용어사전*. 서울: 교문사.
- 신혜영. (2011). *패션산업의 메가트렌드로 나타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슬로 패션, 언제 이렇게 컸지?. (2012. 6. 8).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2. 11. 27, 자료출처 <http://www.donga.com>
- 이성훈. (2011). 그린디자인의 현황과 한계 분석을 통한 발전 방향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2(3), 373-381.
- 이세이 미야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다이 후지와라, (2009. 12). 월간디자인, 자료검색일 2012.12.2, 자료출처 <http://www.design.co.kr>
- 이세이 미야케와 효재, 에코 디자인으로 하나 되다, (2009. 12). 여성중앙, 자료검색일 2012. 11.28, 자료출처 <http://woman.joinsmsn.com>
- 장윤선. (2011). *친환경 섬유소재를 활용한 패션 제품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승연. (2009). *친환경패션에 나타난 가치와 디자인 요소*.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인숙, “문소리 BIFF서 ‘리디자인 드레스’로 시선 집중”. (2012. 10. 5). 패션저널. 자료검색일 2012. 11. 15, 자료출처 <http://www.okfashion.co.kr>
- 한인숙, “코오롱 FnC, 리디자인 브랜드 ‘레코드’ 런칭”. (2012. 3. 21). 패션저널. 자료검색일 2012. 9. 22, 자료출처 <http://www.okfashion.co.kr>
- 환경 살리고 디자인도 참신... 에코패션 인기몰이. (2012. 5. 11). 동아일보. 자료검색일 2012. 11. 15, 자료출처 <http://www.dongA.com>
- Anuschka Hoevener 12 F/W 컬렉션. 자료검색일 2012. 11. 29, 자료출처 <http://www.anuschkahevener.de>
- Burall, P.(1991). *Green Design*, London : The Design Council.
- Black, S.(2011). *Eco-Chic, The Fashion Paradox*, London : Blck Dog Publishing.
- Brown, S.(2010). *Eco Fashion*, London : Laurence King Publishing.
- Bruce, Margaret and Hines, Tony (2007). *Fashion Marketing : Contemporary Issues*, 2nd ed.,
- Blackburn, R. (2009). *Sustainable Textiles : Lifecycle and Environmental Impact*, Woodhead Publishing.
- Burberry 13 S/S 컬렉션. 자료검색일 2012. 12. 3, 자료출처 <http://www.It.burberry.com>
- David-Tomaszewski 12 S/S 컬렉션. 자료검색일 2012. 12. 1, 자료출처 <http://www.dawid-tomaszewski.com>
- Franzius 12 S/S 컬렉션. 자료검색일 2012. 11. 29, 자료출처 <http://www.franzius.eu>
- Frederike Krump. (2012). *FASHION2*. China : altramer publishing.
- Gucci 13 S/S 컬렉션. 자료검색일 2012. 11. 13, 자료출처 <http://www.gucci.com>
- Issever Bahri 12 S/S 컬렉션. 자료검색일 2012. 11. 21, 자료출처 <http://www.isseverbahri.com>
- Lulu Liu 13 S/S 컬렉션. 자료검색일 2012. 12. 1, 자료출처 <http://www.lulu-liu.com>
- Megla. M 12 S/S 컬렉션. 자료검색일 2012. 12. 1, 자료출처 <http://www.megla-m.com>
- redesign, 자료검색일 2012. 12. 7. 자료출처 <http://www.oxforddictionaries.com>
- Thom Browne 13 S/S 컬렉션. 자료검색일 2012. 12. 2, 자료출처 <http://www.thombrowne.com>
- 2013 S/S 밀라노 컬렉션. (2012. 12. 4). *Fashion Insight* No.632.